

1. 포럼 개요

1 기본 개요

- ☐ 행사명: 2023 제17회 세계해양포럼
- ☐ 기간: 2023년 10월 24일(화) ~ 10월 26일(목) / 3일간
- ☐ 장소: 롯데호텔 부산(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 ☐ 주제: 블루테크노미 (Bluetechonomy)
- ☐ 규모: 약 3,000여 명 (온·오프라인 합계)
- ☐ 주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 ☐ 주관: (사)한국해양산업협회
- ☐ 후원: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의회, 부산대학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물류협회, BNK부산은행, 수협중앙회, 팬스타그룹,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일냉장(주), HJ중공업(가나다 순)
- ☐ 주요행사: 개막식, 기조세션, 주제별 세션, 에필로그, 해양환경 캠페인, 2023 대한민국 해양인의 밤

2 개최 목적

- ☐ 해운, 항만, 수산, 조선, 해양과학, 해양정책, 해양인문학, 해양디자인 등 해양 전 분야에 걸친 글로벌 전문가 진단과 미래 비전 교류
- ☐ 해양 분야 국제기구, 정부,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해양산업 미래와 전망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 구축

3 기대 효과

- ☐ 해양산업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한국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 ☐ 해양산업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 형성
- ☐ 해양산업계의 정보교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 제공

2. 프로그램 구성

□ 전체 프로그램(총 16개)

세션 14개, 연계행사 1개, 해양환경 캠페인 1개

일시	시간	세션
Day 1 10월 24일(화)	오전 10:00 - 12:00	[해양정책] *한영 동시통역 해양 수산 과학기술
	오후 15:30 - 20:00	[개막식과 기조] *한영 동시통역 블루테크노미 *연계행사 만찬 - 2023대한민국 해양인의 밤
Day 2 10월 25일(수)	오전 10:00 - 12:00	[해양도시네트워크] *한중 동시통역 동북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도시 간 네트워킹
		[해양금융] *한영 동시통역 Challenge for the future maritime finance
		[SMR 선박] *한영 동시통역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해양용 SMR
	오후 13:30 - 16:00	[해양인문학] *한영 동시통역 가덕, 지난한 삶의 '기록과 보존'
		[조선해양] *한영 동시통역 2050 탄소중립 시대 오션 모빌리티 및 해양 디지털 솔루션 기술의 대전환
	오후 16:30 - 18:30	[해양디자인] *한영 동시통역 중소선박의 안전디자인 [50주년 기념 KIOST스페셜] *한영 동시통역 KIOST 50년, 해양과학기술의 가치 창출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Day 3 10월 26일(목)	오전 10:00 - 12:00	[해운·항만] *한영 동시통역 전환의 시대, 해운항만물류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방향
		[수산] *한영 동시통역 BlueFood & FoodTech Innovation
	오후 13:30 - 18:00	[크루즈] *한영 동시통역 K-Cruise homeport strategy : K-Culture, Tech & IT
		[해양바이오] *한영 동시통역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해양바이오
	오후 16:30 - 18:30	[에필로그] *한영 동시통역 블루테크노미 이후

□ 전체 프로그램 일정(안)

일자	[블루테크노미] Ocean Forever 10월 24일(화)		[블루테크 Day] Ocean Today (OT) 10월 25일(수)		[블루이노베이션 Day] Ocean Future (OF) 10월 26일(목)	
장소	크리스탈 볼룸 A (네트워킹)	크리스탈 볼룸 BC (개막식)	크리스탈 볼룸 A (금융/정책)	크리스탈 볼룸 BC (조선/해운항만)	크리스탈 볼룸 A (스페셜)	크리스탈 볼룸 BC (수산/해양기술)
08:00~ 09:30						
09:30~ 10:00	오프라인 등록		오프라인 등록		오프라인 등록	
10:00~ 10:30	해양정책		해양금융	SMR 선박	해운·항만	수산
10:30~ 11:00						
11:00~ 11:30						
11:30~ 12:00						
12:00~ 13:30			오찬		오찬	
13:30~ 14:00			해양인문학	조선해양	크루즈	해양바이오
14:00~ 14:30						
14:30~ 15:00						
15:00~ 15:30	오프라인 등록					
15:30~ 16:00		개막식 [인사말, 개막 퍼포먼스, 기 조세션]	Break (16:00 - 16:30)		Break (16:00 - 16:30)	
16:00~ 16:30			50주년 기념 KIOST 스페셜	해양디자인		에필로그
16:30~ 17:00						
17:00~ 17:30						
17:30~ 18:00	WOF Networkin g Session					
18:00~ 18:30						
18:30~ 20:00		2022 대한민국 해양인의 밤 (*사전 초청 대상자만 참석)				
기타	해양환경 (캠페인) Pacific Environment					
	25일 오전10시~12시, 42층, 해양도시 네트워크 (부산시-닝보) 중계 X, (한-중) 통역 O					

제러미 리프킨 (Jeremy Rifkin)		
사진	구분	주요 약력
	경제학자, 문명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FOET) 이사장 - 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최고경영자과정 교수 -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비즈니스스쿨 경제학과 졸업 [저서] <p>《회복력 시대》, 《3차 산업 혁명》, 《엔트로피》,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공감의 시대》, 《유러피언 드림》, 《바이오 테크 시대》, 《수소 혁명》, 《생명권 정치학》, 《한계 비용 제로 사회》, 《글로벌 그린 뉴딜》등 23권 출간</p>
<p>□ Bi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 출생 - 제러미 리프킨 (Jeremy Rifkin)은 미국의 미래학자, 작가, 경제학자이다. 20년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고문을 지내며 신성장 장기 계획의 청사진을 그렸다. 현재 워싱턴 경제동향연구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다. 콜로라도 주의 덴버에서 태어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비즈니스스쿨에서 경제학 학사로 졸업하였다. - 리프킨 저서에서 나타나는 문명비판은 환경철학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문명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환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엔트로피, 육식에 대한 비판이나 생명 현상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크다. 생명공학이 21세기에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학문이 될 것이라는 그의 예측도 이런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러한 입각점 때문에 그는 반문명론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p>□ 저서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력 시대 :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기후는 따뜻해지고 있으며 지구는 야생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산업 발전을 이끈 효율성의 원칙이 우리를 지구의 지배적인 종으로 두었지만 결국 자연계의 파멸을 이끌었다. 어떻게 대멸종을 피하고 삶을 지속할 것인가?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경제·사회사상이 제러미 리프킨은 『회복력 시대』에서 죽어 가는 진보의 시대를 해체하고 부상하는 새로운 문명의 서사를 제시한다. - 수소 혁명: 석유시대의 종말과 세계경제의 미래 : 제러미 리프킨은 <수소 혁명>에서 수소 에너지가 이끄는 새로운 경제 체계로 안내한다. 산업 시대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미래에는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인류는 빠른 속도로 화석 연료 시대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질학자들은 석유 자원이 몇 십 년 안에 고갈될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석유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에만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다. 적절한 가공을 거친 수소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연료'이며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도 않는다. 수소 연료는 많은 분야에서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수소 차량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망(HEW)에 각자의 연료전지를 연결하는 분산적 시스템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에너지 권력 시대에 들어서는 것이다. 저렴한 수소 에너지는 제3세계를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또한 세계 권력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3차 산업혁명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 전략을 제시하였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집과 사무실, 공장에서 스스로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인터넷' 안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청사진 등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합쳐져 강력한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수천 개의 비즈니스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평적 관계가 정립됨으로써 경제·사회·문화·교육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무한 경쟁의 산업 시대에서 상생 공존의 협업 시대로 가기위한 3차 산업혁명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를 살펴보고, 지금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 내어 모두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3. 세부 프로그램

□ [SMR선박]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해양용 SMR

◦ 일 시: 10월 25일 오전 10:00 ~ 12:00, 크리스탈볼룸 BC

◦ 기획배경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무탄소 전원·열원 이용이 필수이다. 이러한 시류에 맞춰 SMR은 이미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되어 기술 개발이 추진 중이며 온실가스배출 규제 강화, 북극항로 개척 해양도시, 수소/암모니아 생산 등으로 인해 많은 수요도 예상되고 있다. 해양용(선박/플랜트)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올해 17회 세계해양포럼에서는 처음으로 SMR 세션을 선보인다. SMR 세션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인 해양용 SMR에 대해 알아보고 원자력에너지의 해양 활용을 위한 법령·규제 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한다.

◦ 타임라인

시 간		프로그램
10:00~10:05	5'	[개회 및 세션 소개] [인사말] 좌장 :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10:05~10:20	15'	[발제] 해양용 SMR 기술개발 현황·전망 이태호 KAERI 선진원자로연구소장
10:20~10:35	15'	[발제] 해양용 SMR 국제 규제 이슈 및 동향 패트릭 라이언 Patrick Ryan 미국선급협회(ABS) 최고 기술 책임자
10:35~10:50	15'	[발제] SMR 해양 적용 규정 및 PSA 측면 안전관리 정정호 한국선급(KR) 시스템안전연구팀장
10:50~10:55	5'	Break
패널 토론		
10:55~11:40	45'	발제자 전원 참석 - 이희성 삼성중공업 안전환경기술파트장 - 박상민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상무 - 설한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센터장
11:40~11:45	5'	클로징 및 장내 정리

★: 온라인 참석